"시민 주권시대 실현 최선"

윤장현 광주시장

자동차밸리·웹 콘텐츠 축제 등
미래 먹을거리 위해 시정 혁신
U대회 안전·성공대회로 개최
광주 국제도시로 업그레이드

시민운동가 출신의 '초보 행정가'라는 우려 속에 민선 6기를 시작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1년 만에 연착륙하며 '시민 행정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의 민선 6기 남은 3년간의 시정설계는 '시민시대'를 위한 시정혁신과 미래 먹을거리 정책의 완성으로 모아진다. 도시철도 2호선 내 푸른길 구간 보존 등 시민과 환경 중심의 시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29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광주시정의 현실을 민낯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광주다운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했던 시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시정 혁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년을 겸허히 성찰하면서 민선 6기 2년차에는 3대 산업밸리 본격 추진, U대회 성공개최를 통한 열린광주 도약,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감한 시정혁신 등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특히 "빛그린산단과 진곡산단에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자동차산업밸리를 조성하고, 대촌동 일원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공직사회를 일 잘하는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산하기관장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등을 통한 인사혁신 시행, 입찰분야 심사자 명단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교육원 시스템을 선진화해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등 행정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광주 U대회를 역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광주를 국제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선무로 메르스 여파로 인한 시민경제 살리기, 문화전당 활성화 및 문화예술 클러스터 육성 등을 꼽았으며, 도시철도 2호선 공구 내 푸른길 공원 보존, 광주역 주변 활성화 방안, U대회 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인권과 소외 계층 돌봄, 범죄,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도 약속했다.

윤 시장은 "우선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민생활 현장의 차별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와주는 '지킴과 돌봄'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기쁨,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가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지대(Barrier Free Zone)' 조성,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전용택시 확충,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전력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성평등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과 골목상권 보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농업의 '6차 산업화', 성평등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여성의 직장 및 가정생활의 고충 해소를 위한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등도 확대 설치한다.

또 노대동 노인건강타운과 나주, 화순을 삼각벨트로 묶는 '은퇴자 천국' 조성, 주요 생활거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0분 시내버스' 도입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형 참여 예산제도 본격 시행해 근린생활권 마을사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주택 건설, 공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시장은 푸른길 공원 등 도심 속 녹지자원을 보호하고 골목길과 가로, 공원, 도심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광주 100년 숲'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관심이 높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윤 시장은 사회대타협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2018년까지 시 산하 비정규직 89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시장은 특히 청년 창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들이 거대시장 중국과 동남아를 개척해 나가는 '광주청년 프론티어' 파견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정신의 세계화에도 나선다. 윤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를 기반으로 한 광주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지역을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에도 가속도를 내겠다"면서 "아시아와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제2호 광주진료소 건립 등 아시아의 이웃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에너지 산업의 '메카' 조성"

이낙연 전남지사

목포권에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중국 수출 늘리고 인적 교류 확대
광양·나주에 창조혁신센터 추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겠다

앞으로 민선 6기 전남도정은 에너지밸리, 관광산업, 중국, 혁신, 해양수산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오는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를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묵묵히 현장 행정을 이어가면서 전남의 애로를 타개하고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인사 및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도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분적인 아쉬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이 지사는 최근 전남의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5대 중점 과제를 내놓았다. 지난 1년간 도정 및 현장 경험, 지역 내외의 변화, 성과와 반성 등에 기반해 마래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소통'을 강화하고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 내 '신선한 자극'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최근 전남의 발전전략에 영향을 줄만한 몇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며 "세계적 에너지기업인 한국전력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고, 여수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호남고속철도 개통, 한중 FTA 타결 등은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한국전력, 광주시와 함께 추진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에너지 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와 에너지밸리센터 건립,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남해의 해상풍력과 광주의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빛가람에너지밸리를 연계해 전남을 한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광객 5000만명 시대도 약속했다.

이를 도내 22개 시·군에 남도음식거리를 최소 1곳씩 조성하고 숙박시설을 확충·개선하기로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토요문화장터 개설, 휴양형 마이스 산업 육성, 남도길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중국 전략도 짜임새 있게 추진한다.

이 지사는 "중국 업무를 맡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한편,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중국 연구소 개소 문제도 광주시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1억 달러로 늘리고 항공·선박의 증편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여수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 별도로 포스코, 한국전력과 협의해 광양에 부품소재 관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이 지사는 "광양과 나주에 들어설 센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라며 "포스코와는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목포권에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이끌 고차가공 수산 식품단지 조성, 해양 및 수산기자제 관련 기업 및 민관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들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 역량 강화에 나서 승진 자격 강화, 시·도 인사교류 증대 등에 나선다.

민선 6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F1과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F1은 연착륙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끝나지 않았다"며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쟁점을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북협력사업과 관련 "최근 홍용표 장관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지자체나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땅끝협력, 북한 산림녹화 동참 등에 이야기 했으며 중앙정부가 돕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이날 ▲세월호 추모공원 및 안전센터 전액 국비 조성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결정 ▲감염병 전문 격리병동 신설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남의 도약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부지런히 뛰어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